

##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9]

### 근접한 표현

김완일 목사 / 1994

성경공부에서는 멀리있는 것보다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이웃은 참석자들의 눈에 보이는 아주 근접한 사람들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항상 근접한 자들, 곧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옥에 갇혀 있는 자, 벌거벗은 자들을 자칭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었는지 묻고 계신다. 성경공부 인도자의 말은 이렇게 근접한 장소, 묘사, 지시, 행동, 결정일 때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진리는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돌려버리게 된다.

현대인은 자신과 무관한 일에 관심이나 의욕을 나타내지 않는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세가 오늘의 인간심리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으로 수천 년전의 인물을 말할 때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과 관련지어 말할 수 있을 때 설득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용서」를 이야기 할 때는, 남편이 한때 불성실했던 사실을 기꺼이 잊어주는 아내의 자세에 대해 말함으로써 용서의 모습을 근접하게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창하게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용서」개념을 백번 이야기 하는 것보다, 부당한 행동으로 벌을 받은 한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치마폭을 끌어 안으며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그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잘못된 용서, 질병의 치료,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새로운 생명 등 성경공부 인도자는 참석자들에게 눈으로 확인되듯 근접한 표현으로 말해야 한다. 성경의 표현은 그 말씀이 그려주고 있는 영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나 그 안에 깃든 영상을 볼 수 있다. 시편 103편에 언급된 용서는 근접한 표현으로 곧 영상화되고 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 .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줄 수 있기 위해서 인도자는 이러한 영

상적 언어 (pictorial language)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근접한 표현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직유나 은유적 표현을 함으로 가능하다. 직유나 은유는 참석자의 시야와 이해를 넓혀주며,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참석자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은유나 직유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관련해서 목자, 아버지, 남편, 왕, 연인, 신랑, 용사, 주인, 포도원 주인, 노예를 해방시켜주시는 분, 마르지 않는 샘, 반석, 요새, 사자,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곰, 생명수 샘, 길,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 방패, 토기장이, 심판자, 법정의 증인과 같은 분이시다. 인도자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 참석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

\* 출처 : 은누리신문